

10년 500억 투입했는데...전남 관광특구 '밑 빠진 독' 전략

전남지역 관광특구가 부족한 관광 콘텐츠, 낙후된 인프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눈에 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관광특구는 구례군, 목포시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구례군은 1997년 1월 정부가 지정했다. 목포시의 경우 2007년 7월 관광특구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전남도가 지정했다.

구례군은 토지·마산·광의·산동면 일원 782㎢ 면적이 관광특구에 포함돼 있

다. 그동안 지리산온천 관광지 조성, 지리산 야생화 정원 조성 등이 이뤄졌다. 목포시는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갯바위·평화광장 일원 등 687㎢ 면적을 관광특구로 보유하고 있다. 근대역사이야기 공원, 쇼핑특화거리 등이 조성됐다.

문제는 당초 관광특구 지정 요건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관광객 수다. 실제 구례 관광특구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21년 1만4천578명에서 2022년 5천166명, 지난해 4천83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구 내 핵심 시설인 지리산 온천랜드도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와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 주변 상권 쇠퇴가 두드러진다. 목포 관광특구 역시 2021년 1천137명, 2022년 3천665명에서 지난해 3만7천161명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관광산업 발전 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

은 상황에서 그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구례 특구에는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2014-2019년, 116억6천600만원), 지리산 온천관광지 정비(2016-2021년, 72억6천700만원) 등 최근 10년 동안 총 488억4천400만원의 사업비를 쏟아부었다.

목포도 평화광장 관광 개발(2020년, 32억6천600만원),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2020년, 20억원) 등 총 110억8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개 관광특구에 최근 10년 간 소요된 관련 예산만 5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전남도와 시·군이 사업 추진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추가 사업 추진도 난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은 주변 인프라, 교통 편의성 등이 하나만 충족시킨다고 해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관광특구 지정 취소 사례가 없는 만큼 전남지역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특별한 활성화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차별화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의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관광 거점과 핵심 콘텐츠를 주변으로 파급시켜 관광 편의성을 높인 수도권 관광지와 달리 전남은 경쟁력이 높은 관광 콘텐츠도 분리돼 있어 거점 중심의 관광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2025년 무안 공항 활주로 연장과 호남고속철도(KTX) 경유로 늘어날 관광객을 끌어올 만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시원 기자



추석 택배로 분주한 우편집중국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각종 선물소포 및 택배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광산구 쌍암동 광주우편집중국에서 관계자들이 밀려든 선물용 우편물을 배송 지역별로 분류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동·서부 아우르는 의대 설립방식 필요”

도의회, 국립의대 입장문...도민 중심 결정 원칙 강조
오늘 목포대·순천대 설명회...12일 최종 설립방식 발표

'전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추천공모' 용역기관이 오는 12일 전남권 의대 설립방식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전남 동·서부를 모두 아우르

는 설립방식과 도민 중심의 결정 원칙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의회는 9일 도의원 일동 명의 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가 정부에 추천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 결정은 200만 전남도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국립의대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핵심 전략'의 첫 번째 단계

이고 의대 설립을 기반으로 지역필수의사제 등 다음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도는 지역의료체계 완결성 구축을 위해 첫 단계인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은 (목포대·순천대) 양대학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도민이기에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어디서나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Today
윤동주·안중근 청년정신 배우다 9면
KIA매직넘버6...우승축포언제? 16면
홍명보호, 오늘밤 오만과 2차전 16면

알림

학교폭력 예방 광주교육 희망토크

9월23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연수원 중강당
'학교폭력 예방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 주제

광주매일신문은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광주교육 희망 토크를 개최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광주교육 희망 토크는 9월23일 오후 2시 광주시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열립니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는 광주매일 TV와 광주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계자는 물론,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주 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공격의 이해와 접근
- 일 시: 2024년 9월23일(월) 오후 2시
- 장 소: 광주시교육연수원 중강당
- 주제발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 토 론 자: ▲이호동 경신여자중학교 교사 ▲박윤희 광주 동구중학교 학부모회 대표 ▲박소윤 영천중학교 학생(3학년)
- 주 최: 광주시교육청
- 주 관: 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광주매일신문
- 문 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광주매일신문

전라남도 JeollaNamdo

생명의 땅 으뜸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사랑 전남품(愛)

'내가 사는 전남(愛) 주소찾기'로

고향 사랑을 실천해주세요

대상 실제 전남에 생활하면서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도민

방법 민원24누리집, 주민센터 방문,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단체, 기관)